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시청**

전문공보관 유진승

전화 061-725-4310 / 팩스 061-725-4315

**보 도 자 료**

2020. 5. 14.(목)

**제 목**

**코로나19 방역조치 방해사범 등 일괄 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제11조 제1항)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시청(지청장 이철희)은 2020. 5. 13. 자가격리 조치 및 폐쇄조치를 위반한 S교 신도 9명을 비롯하여, 코로나19 관련 사범 14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전원 구공판)
- 순천시청은 지청장을 단장으로 하여 감염병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코로나19 수사대응단」을 구성하여 코로나19 집단감염 재확산 추세에 엄정 대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코로나19 관련 사범을 지속적으로 엄단할 예정임

**1] 자가격리조치 위반사범(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 자가격리조치에 위반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애인 돌보미로 근무한 S교 신도 기소
  - S교 신도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A(36세), B(34세)는 담당 공무원 으로부터 서면 및 전화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20. 3. 초순경 통보를 받은 당일조차도 순천시 소재 2개 어린이집에서 유아 돌봄 활동을 하였음

- S교 교육생인 장애인 활동지원사 C(52세)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20. 3. 초순경 순천시 소재 장애인의 집에서 장애인 돌봄 활동을 하였음

자가격리조치에 위반한 선원 등 외국인 기소

- 베트남인 D(36세)는 입국과 동시에 임시생활시설 격리 후 자가격리로 전환되면서 격리통보 및 설명을 받았음에도 임시생활시설에서 나온 당일인 '20. 4. 초순경부터 한국인 선장 E(55세)의 여수항 기반 어선에서 선원으로 근무하였음
- 베트남인 F(29세)는 입국과 동시에 임시생활시설 격리조치 후 동 조치가 해제되면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20. 4. 말경 광양시 소재 산부인과에서 지인 병간호 등을 하였음. 동인은 특히 자가격리법에 의한 추적을 피하고자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외출을 하였음

자가격리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경우, 적발 이후 검사에서도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아 주변이나 지역사회의 추가 감염을 야기하지는 않았으나, 무증상 감염도 발생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 엄격한 자가격리 지침 준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모두 정식재판(불구속 구공판)을 받도록 하여 경각심을 고취함

**2] 폐쇄조치 위반사범(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 순천시에서는 '20. 3. 10. S교 시설 등에 대해 일시적 폐쇄, 출입 금지, 집회금지 명령을 하였으나, S교 신도인 G(54세) 등 6명은 '20. 3. 중순경 S교로 의심받을 만한 물건의 반출을 위하여 순천시 소재 S교 교육관의 출입문에 부착된 행정명령서를 뜯어내고 진입하였음

### ③ 감염 빙자 업무방해사범(업무방해죄)

- 순천 소재 병원 직원인 H(58세)는 병원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20. 2. 말경 위 병원 재활치료실 앞 복도에서 '다 같이 죽으려고 내가 대구와 청도에 다녀왔다. 이사장 불러라. 다 같이 죽자'는 등의 말을 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인 것처럼 허위 소란을 피워 3시간 동안 병원 재활치료실 등이 폐쇄되게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코로나19 검사 후 자가격리 되도록 하였음

### ④ KF94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사범(사기죄)

- 직업이 없는 I(23세)는 KF94 마스크를 보유하거나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20. 2~3.경 인터넷을 이용하여 KF94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600만 원을 교부받았음